

현대인의 삶에 청안함이 전해지기를...

산사의 청량한 바람소리가 마음 깊이 울리는 법음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우리 또한 맑은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음까지 풍성해가는 절기에, 문화적 삶을 나누겠다는 산사음악회는 현대인들을 평온함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은은한 향기를 담고 있으면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 무량사 ‘힐링 산사음악회’는 스님의 원력에 더해 불자님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각별함이 이루어낸 사회적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 그리고 소통의 하모니를 함께 만들어 주신 무량사 주지 제민스님과 신도 여러분, 그리고 출연진 및 지역주민과 부여군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행복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노력은 스스로 선근을 심는 일이자 좋은 수행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새기면서 현대인에게 문화생활의 유익함을 전하고 정신의 의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일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전통산사와 현시대의 삶의 문화가 만나 현대인의 삶에 절실한 ‘힐링’을 선물하고,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우리 사회에 스며들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청명한 마음이 함께하는 열린마당에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이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풍성해진 마음과 함께 모두의 앞날이 향기롭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9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